

[일대일로 맺어진 우리 가족] 기도와 사랑으로 끈끈히 묶였어요

2001 / 페이지 수: 3

김 선택 장로는 지난 93년 두 가정을 양육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 중에 김 철주 집사는 특히 김 장로의 기억에 남는 동반자였다. 김 철주 집사는 일대일 양육을 마치자마자 병원에 입원했다.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데 심근경색이란다.

지금은 없어진 2층 계수실에서 양육을 시작했을 때 김 집사는 거부감까지 가지고 있었다. 김 선택 장로는 말한다. “내가 지금까지 양육한 사람을 세어보니 17명인데 그 중에 가장 활발했던 사람은 김 철주 집사였어요. 반면 항상 침착하고 걸음을 꼬집어 말하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준비시키는 제자였지요.”

어려운 동반자, 어려운 양육자

그러던 것이 ‘성령 충만’에서 깨졌다. 김 철주 집사는 중환자실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유 진소 목사가 진행하는 양육자반에서 공부를 하고 양육을 시작했다.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님을 깨닫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다.

그 첫 열매가 심 낙희 집사이다. 교만했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거기에 열정까지 더해 만난 첫 동반자는 김 집사를 참 곤란하게 하는 성도들이었다. 그는 바로 하늘같은 대학 3년 선배부부. 더구나 선배부인은 신학을 전공하기까지.

김 철주 집사에게는 동반자가 항상 어렵다. 3년 선배를 양육하고 나니 이제는 6년 선배를 양육하게 되었다. 또 이혼 직전의 두 가정도 양육했다. 지금은 두 가정 모두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

심 낙희 집사가 김 철주 집사와 일대일양육을 시작했을 때는 심 집사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다. 영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모든 부분에서 평안한 것이 없었다. 남편은 사업이 망했고, 남동생은 가산을 탕진해서 멕시코로 이민을 가야 했고, 전세 살던 집은 경매에 붙여져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때 일대일 때문에 만난 김 철주 집사는 항상 기도를 많이 해 주고 만나주고 위로와 격려를 도와주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주었다. 심 집사는 회고한다. 만일 그때 일대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거라고.

김 집사는 철저하게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었다. 기도뿐만 아니라 동생의 진로까지. 남편은 후배에게 배운다는 체면 때문에 항상 잘 따라주었다.

더구나 하나뿐인 남동생이 멕시코로 이민을 가야했을 때 불안해하는 심 집사에게 ‘보내는 것은 기도로 미사일을 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소망이 없어 보이던 올케가 지난 주일에 교회에 나갔다고 전화가 왔다. 5년 만에 기도가 응답된 것이다.

심 집사는 일대일을 항상 일대일로만 고집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늘 너무 좋은 동반자를 만났어요.”라며 동반자가 좋아서 양육이 잘 되었노라고 심 집사는 말한다. 동반자를 통해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은혜를 받고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네 번째를 계보를 지키고 있는 신 보경 집사는 일대일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어쩌면 시간낭비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교재인데다 새 신자에게나 필요한 것일 뿐 이미 신앙생활을 해온 자신과 같은 성도에게는 단지 형식적인 과정일 뿐이라고.

그래서 만남을 갖는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교제에 의미를 두고 시작했다. 심 낙희 집사와 이렇게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공부보다 간증이 더 좋아

심 집사는 겸손하고 온유한 신앙으로도 선배였다. 만남은 심 집사의 신앙 간증을 듣고 인생을 살면서 겪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좋았다.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고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이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심 집사는 마음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열등감과 어려운 사정을 보여 주었다. 신 보경 집사는 그것이 얼마나 동반자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지 안다. 물론 이제는 그것이 신 집사의 일대일 양육의 노하우가 되었다. 어떤 동반자를 만나도 쉽게 내어놓기 어려운 열등감을 이야기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위로를 받고 배웠기 때문이다. 첫 동반자에게도 지금 하고 있는 동반자에게도.

신 집사에게는 한두 가지 일대일 규칙이 있다. 첫 만남에서 항상 식사를 대접하고 일대일 양육교재를 선물하는 것. 그리고 한 번 만나면 3시간 정도를 함께 보내는 것.

삶을 나누는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삶속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지 보게 된다.

이 계보의 마지막인 박 진선 자매는 심 보경 집사에게 첫 열매이다. 박 진선 자매는 태어난 지 6개월이 된 어린 아기를 데리고 양육을 받았다. 때로는 소란스럽고 대화가 진전이 없었지만 진선자매는 웬만해서는 빠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감격에 겨웠다.

2000년을 처음 열면서 6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었지만 박 진선 자매는 신 보경 집사가 이모나 언니 같아서 너무 좋았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이나 가정 생활이야기를 나누어도 허무하기만 했다. 박 자매는 결심했다. 일대일 양육을 받기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 맡겨요

2000년 1월 5일 첫 만남에서 심 집사는 기도제목을 물어왔다. 마침 전세만기가 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어쩌나 하고 생각하던 차였지만 쉽게 말을 하기는 쑥스러웠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말을 했더니 ‘잘 될 거예요’라고 말할 줄 알았던 심 집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자’고 말을 해오는 것이었다. 그때 가장 감동이 있었다. ‘아! 나에게 맡길 분이 있구나’하는 생각이었다. 무엇이든지 맡기지 못하는 성품을 가진 자매로서는 맡길 곳이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동안 성령의 감동이 충만했다. 그 후 한 달 만에 박 자매는 집을 사게 되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기도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을.

도움을 받게 된 것은 그것뿐만 아니다. 큐티하게 되었고 말씀도 암송하게 되었다.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아이를 출산한 박 자매에게 심 집사는 모든 것에 선생님이었다. 아이를 기르는 법, 남편과 대화하는 법, 시댁에서 처신하는 법 등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것에서 도움을 받았다. 심지어는 요리 방법까지. 지금도 집사님이 남편에게 했던 것들을 부부생활에 적용하고 산다.

박 자매는 아직 아이가 어려 양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양육을 하게 된다면 심 집사와 같이 남이 아닌 가족으로 고통도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싶다.

일대일 양육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니뭐니해도 동반자와 성장해서 봉사자가 되었을 때이다. 모든 양육과정이 끝났어도 맹송맹송한 동반자를 보면 안타깝다. 자신에게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동반자가 맛보지 못한 것 같기도 해서이다. 그렇게 안타깝게 하고 꿀탕을 먹이던 동반자가 2~3년 후에 교회 어디에선가 봉사를 하고 있을 때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는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

지금까지 17명 째 양육을 하고 있는 김 장로는 ‘교제’ 부분을 공부할 때는 꼭 부부간의 교제관계를 점검해준다. 신 보경 집사는 항상 먼저 식사를 대접한다. 각기 양육자들은 노하우가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꿀방을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수고인 듯.

*** 출처 : 온누리신문**